

# 개인기도와 중보기도

| 양승훈 목사   비채교회 담임   청년목회자연합(YOUNG2080) 훈련원 EMC 대표

## 마태복음 6장 5~8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 1. 기도의 목적

---



---



---

### 2. 외식하는 자의 기도 ( “ ” 기도)

---



---



---

### 3. 이방인의 기도 ( “ ” 기도)

---



---



---

### 4.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중보기도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 창세기 20장 17~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단으셨음이더라

### 디모데전서 2장 1~5절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

---

---

---

---

### 5. 중보기도의 성경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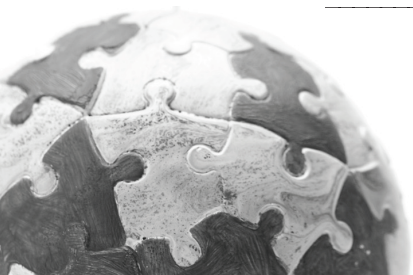
---

---

---

---

---



## 6. 중보기도자의 위치들

### 에스겔 23장 30~31절

30)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31)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 이사야 62장 6~7절

6)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 요한계시록 12장 7~12절

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

---

---

---

---

## 7. 영적전쟁의 기초

엡 6:10~12절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

---

---

## 8. 영적인 세계

---

---

---

## 9. 하늘의 악의 영들

---

---

---

---

---



10. 땅을 더럽히는 것

---

---

---

11. 영적전쟁의 원리

---

---

---

12. 우리의 태도

---

---

---

##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illegible]

# 전도하고 싶은 정착하고 싶은 교회

| 김영석 목사    종교교회 청년담당

## 1. 종교교회 이야기

사람들이 질문을 해 왔다. <종교교회는 왜 성장했나요?> 질문은 받는 순간 이처럼 어려운 질문이 없다고 생각했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대답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잘못된 말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단정지어 말할 수도 없고 누구의 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문제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다.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교회 청년부도 마찬가지다. 성장을 계획하고 한 일은 없다. 계획대로 된 적도 없다. 물론 기대하며 일을 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종교교회 청년부는 지난 2006년 <예배 평균 출석>이 60명에서 2010년 300명으로 성장한 공동체다. 광화문 한 복판 110년된 교회에서 청년부가 부흥한다는 이야기



가 많은 교회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1년 동안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의 수는 2006년 72명에서 2010년 155명 정도가 되었다. 그 중에서 등록자는 2006년 25명에서 2010년 118명으로 늘어났으며 (2주 동안의 새가족교육을 마친 사람을 등록자로 받는다.) 정착자는 2006년 18명에서 2010년 118명으로 늘어났다.

통계에서 보여진 대로 청년부의 성장은 단기간에 손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첩경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다. 정도가 있을 뿐이다. 공동체가 건강해 지면서 정착률도 높아진다. 성장하면서 정착률도 높아져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가족 정착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청년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



---



---

## 2. 어떤 교회라면 전도하고 싶겠나? <왜 전도하기 어려운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이다. 기가 막힌 전도 방법을 전수받으려고 한다. 전도폭발을 배우면 되더라, 사영리가 더 좋다더라, 대세는 노방전도다, ... 등 여러가지 다양한 시도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전도하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



---

어떤 교회가 전도하고 싶은 교회일까?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라.

---

---

---

당신이 전도하고 싶지 않은 이유, 전도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적어보라.

---

---

---

### 3. <전도하는 이유, 정착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전도프로그램으로 절대로 정착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정상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목적이 신앙이라는지 진리의 탐구에 있는 사람이 무작정 정착하겠는가? <당신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당신이 이사갔을때를 상상해 보라.

교회가 부흥하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교회가 부흥하는 현상은 한 가지다. 새 가족이 정착하는 것이다.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찾은 사람, 지나가다가 들른 사람, 부모와의 평화를 위해 떠밀려온 사람, 애인 때문에 혹은 애인 만들려고 온 사람, 교회 쇼핑 중인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다. 그들이 정착하면 성장하는 것이고 그들이 떠나면 정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가족이 정착하는 이유도 한 가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좋은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정성껏 돌보는 리더들이 있어야 하고 영감있는 예배와 찬양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다양한 만큼 새가족 정착을 위한 교회의 노력도 다양해야 한다.

새가족들에게 물었다. 우리교회 정착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다. 찬양이 좋다. 간사님이 잘생겼다. 목사님이 좋다. 설교가 좋다. 집이 근처다. 회사가 근처다. 등등〉 이 말을 믿으면 안된다. 자기들도 정착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물어보니 대답했을 뿐이다.

실은 그들이 정착하는 것은 우리교회에서 거부감이 아니라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는 새가족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 작은교회라고 매력 없으라는 법 없다. 큰 교회는 상상도 못할 일을 계획하고 기획하면 된다. 작은 공동체가 가장 매력적일 수 있는 일을 시작해보라.

### 설교

설교가 새가족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 알아듣지 못해도 매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설득적으로 공감을 얻어가며 뜨겁게〉 전해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설득적이어야 하고 새가족의 공감을 얻어야 하며 가슴이 울리도록 뜨겁게 전달해야 한다. 성경공부도 이 원칙아래 있어야 하고 기도회도 같은 원리로 준비해야 한다.

### 예배

새가족들은 예배를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살피기 보다 예배하는 기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다. 다시 말해 새가족은 예배에 관심이 있기보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새가족을 위한 예배는 그들에게 맞춰진 예배라기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이다.

## 기도

마찬가지다. 새가족을 위한 기도회는 없다. 새가족이 보고싶은 기도회가 있을 뿐이다. 기존의 성도들이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없다. 이런 기도회야말로 새가족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학교다.

### 4. <전도하고 싶게 만드는 리더, 정착하게 만드는 리더>

무엇보다 교회가 전도하고 싶은 교회, 정착하고 싶은 교회가 되는 가장 바르고 빠른 길은 목회자와 <같은 꿈>을 꾸는 리더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종교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꿈 꿀을 알아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땀흘려 준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꿈을 발견한 목회자가 있었고 그 목회자의 꿈이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만들어 낼 수 없는 부분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꿈을 전하고 보여주지만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 목회자와 함께 꿈꿀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꿈꿀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 다른 사람을 위하여 : 아담의 죄의 굴레를 끊은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성숙의 기준, 바울이 가졌던 인생의 기준, 인정 색경 성경!

---

---

---



— 절대로 없어서는 안되는 것들 : 즐겁게! (하나님은 유머러스한 분, 예수님의 발 씻기기, 경쾌하게 신앙생활하라) 진실하게! (교회와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 아내가 나를 목사로 보기 어려워 한다면 끝이다. 내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 진실한 목회자.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지켜라. 순진한 믿음—시116편—을 기뻐하신다.) 겸손하게! (리더는 리더가 되는 순간 망가진다. 예수님의 힘은 리더로서 리더이기를 포기했던 것이다. 끄는 자가 아니라 미는 자다)



##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

---

[illegible]

# 시대를 분별하라

| 탁지원 대표   월간종교 발행인   한국기독교청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 A. 세칭 구원파에 대하여

세칭 "구원파"라는 단체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는 독특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 파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단체이다. 대략 세 종류가 활동하고 있는데 기독교복음 침례회 (권신찬, 유병언), 대한예수교침례회 (이요한), 대한예수교침례회 (박옥수) 가 있고, 이 세 단체 모두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 1.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신찬, 유병언)

권신찬씨는 1923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났다. 1951년 11월 30일 목사 안수를 받고 주로 경북지방에서 목회를 했다. 1962년 12월 30일 독립교회에서 시무하다가 복음 주의방송국(현 극동방송국)의 전도과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후 권씨는 사위 유 병언씨를 부국장에 앉히고 구원파 신도들에게 간부직을 맡기는 등 극동방송국을



점거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1974년 극동방송국 측으로부터 파면 당했다. 파면 이후 권씨는 서울 삼각지를 중심으로 기성교단에 노골적인 대적자로 등장한다. 유병언씨는 "기업이 곧 교회"라는 논리를 펴게 된다. 권씨의 기독교복음침례회는 1961년 11월 네덜란드 선교사 케이스 글라스Case Glass의 영향으로 "죄 사함을 깨달았다."는 권신찬과, 미국인 독립선교사 딕 욕Dick York의 영향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는 그의 사위 유병언에 의해 시작됐다.

## 최근 동향 >>>

기독교복음침례회(권신찬, 유병언)는 환경단체 "한국녹색회"와 "전도 집회"를 통해 포교하고 있다. 청년 대학생 활동 중 "녹색회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주말마다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 동아리나 순수한 환경단체로 가장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 여러 곳에서 전도집회를 통해 포교하고 있다. 이들의 전도집회 순서는 먼저 인생과 성경의 과학적인 부분을 주제로 다루고 이스라엘 역사, 인생의 죄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들의 홈페이지 [www.ebcworld.org](http://www.ebcworld.org)는 해외 "전도집회" 모임 내용만 공개할 뿐 구체적인 해외 포교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괌, 미국, 멕시코, 베트남, 일본,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2박3일에서 6박7일 동안 "성경탐구모임", "건강캠프", "수양회" 등의 집회명으로 모이고 있다. 하지만 주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보여, 해외포교 활동은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 2. 대한예수교침례회 (이요한)

이요한(본명 이복철)씨는 중학교 졸업 후 한국전쟁 기간 중 대구 임시 신학교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창시자 권신찬씨에게 잠시 지도 받은 것이 교육배경의 전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원과 초창기인 1960년대 중반부터 목포에서 권씨와 함께 활동하다 1971년 권씨에게 목사안수를 받았다. 기성 교회를 비판하고 시한부종말론 등을 내세운 이씨는 1983년 교회 헌금을 사업에 전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유병언의 사업이 천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유씨를 비판하면서 "교회와 사업은 분리돼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복음수호파"로 분리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대

한예수교침례회"를 설립했다. 서울교회로 활동하다 1994년 경기도 안양 인덕원의 1천여 평 대지에 교회를 신축하고 서울중앙교회로 개칭했다.

### 최근 동향 >>>

대한예수교침례회(대표 이요한)는 홈페이지 "생명의말씀 선교회"를 통해 이요한 씨 측의 국내외 교회 소식과 성경강연회 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설교 동영상과 MP3파일을 제공하고 있어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판사 "영생의말씀사"에서 이요한 씨 측의 전도용 소책자와 신앙서적을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상담", "성경강연회" 등을 열어 자신들의 교리를 설명, 포교하고 있다.

또, 미주, 유럽, 중국, 일본, 러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7개 권역으로 나눈 21개국에 64개 해외 지 교회를 세우고 포교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생명의말씀선교회 [www.jbch.org](http://www.jbch.org)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지원을 통해 이요한 씨의 성경 강연을 전하고 있다. 해외 포교와 관련, 생명의말씀선교회는 세계선교 [world.jbch.org](http://world.jbch.org) 게시판에 개설해 파견된 국가에서의 선교일정, 교회현황, 선교소식 등 해외현황을 수시로 게시함으로 소속 선교사들 간의 원활한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 3. 대한예수교침례회 (박옥수)

박옥수 씨는 경북 경산 선산군에서 1944년 6월 출생했다. 네덜란드 선교사 케이스 글라스 Case Glass의 집회에서 크게 감화 받은 박씨는 1968년 6월 8일 전역 후 신림동 어린이 천막집회 후 김천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 "믿음의 방패 선교회"의 디옥 Dick York 선교사에게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후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박씨가 선교학교를 이어받게 되고 이때부터 박옥수 구원파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90년 대전 한밭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박씨는 2004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기쁜소식강남교회로 옮겼다. 현재는 "대한예수교침례회"라는 교단명을 쓰고 있다.



## 최근 동향 >>>

대한예수교침례회(박옥수)는 여름과 겨울수양회 및 학생캠프를 통해 박옥수씨의 설교를 전파하고 있다. 주간 「기쁜소식」을 신문형태로 발행해 무료배포하고 있고, 최근에는 청소년 교양잡지로 가장한 계간 「Tomorrow」를 창간해 청소년들을 포교하고 있다. 박옥수 구원파의 핵심조직인 IYF(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대표 도기권)를 2001년 3월 조직, 대학 내에서 영어말하기대회, 영어동아리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외국어나 문화적 요소로 접근한다. 또 청소년들의 해외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자극해 굿뉴스코 해외봉사활동 봉사단을 모집하고, 각종 문화공연과 국내외 박옥수 성경세미나를 열어 포교하고 있다.

기쁜소식선교회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6대륙을 13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2010년 2월 현재 총 154개 해외 지 교회를 세웠다. 해외 지 교회를 중심으로 산하 단체 IYF(국제청소년연합, 대표 도기권)는 월드캠프, 글로벌캠프, 의료봉사, 문화행사 등을 통해 한국 유학생 및 현지인들을 포교한다. 또 홈페이지 [www.goodnews.or.kr](http://www.goodnews.or.kr)는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헝가리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의 외국어를 지원해, 13개 국어로 기쁜소식선교회의 소식 및 박옥수씨의 성경강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포교방법 >>>

보통 구원파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넓고 근사한 장소들을 골라 성경세미나 또는 성경강연회 등을 무료로 연다는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포교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한 번 정도 그곳에 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라는 안일한 생각에 다시는 우리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청년들에겐 대학가 등을 통해 적은 물질로 외국에 보내주겠다고 홍보하여 그 나라에서 문화공연, 자원봉사, 홈스테이, 영어교육 등으로 환심을 산후에 성경세미나로 청년들을 포교하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에겐 "영어 말하기대회"라는 것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구원파 중 (기쁜소식강남교회)의 "주일예배"현장을 스케치해보았다. 그들 교회 안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고하시길 바란다.

기쁜소식강남교회(대표 박옥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해 있다. 지난 2월 7일 오전 10시, 7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일예배가 시작됐다. 기쁜소식강남교회 예배당은 극장식 연결의자가 배치돼 있었고, 천장에는 많은 조명기구들이 설치돼 있었다.

단상에 오른 박옥수씨가 성경을 펼치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은 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씨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씨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했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생각, 주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은 사단이 준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을 하면 저 이단들, 그러면 죄 막지어도 되겠네. 이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감정을 높였다. 설교는 한 시간여 지속됐다. 박씨는 설교의 결론에서 나는 내 죄를 기억해도 주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내 죄를 빌 때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도말했기에 내 죄가 씻어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신도들에게 기도를 촉구했다. 짧은 시간 신도들은 눈을 감고 침묵했다.

기도가 끝난 후 성찬식이 진행됐다. 박옥수씨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찬송을 부르고, 성찬식 진행자에게 호명된 장로가 나와 떡을 위해 축사하며 검은 정장을 입은 성찬 위원들이 담당 구역 신도들에게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크기의 떡을 돌렸다. 포도주를 마시는 과정도 떡을 먹는 과정과 동일했다. 구원과 교회의 예배는 나름의 순서와 질서가 있었지만, 기성 교회와 다르게 세세한 순서는 없었다.

그러나 신도들의 새 신자를 향한 관심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새 신자 방문 시 담당 관계자가 접근, 새 신자의 예배를 도왔고, 예배 후 "구원의 여부"를 물으며 좀 더 교리적으로 접근했다. 이후 새신자반으로 안내해 교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구원파의 포교로 기성 교인 및 새롭게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아이러니 그 자체였다. "회개무용론"을 주장하는 구원파의 교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기성 성도에게 매력적으로 들리며 이러한 틈새를 이용한 구원파의 포교활동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미혹 받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 문화 단체 등을 표방한 구원파의 포교전략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포교되고 있다. 공교육 현장인 고등학교에 IYF란 이름으로 침투하여 문화공연을 펼치는 것처럼 하고 내용은 포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잡지 발간을 통해서와 방학 캠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 대처방안 >>>

### a. 올바른 구원관이 필요하다!

구원관을 바로 아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구원관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파를 대처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이단을 상담하는 이들에게 이단대처를 위한 방안을 물으면 교회차원에서는 이단강의 등을 통해 이단에 대해 바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불어 개개인에게는 올바른 구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원에 대해 정확히 알고만 있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필수적이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나 확신이 부족해 구원파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원파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바른 구원관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구원파의 구원관이 기성 교회와 어떻게 다른지,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육적생일을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영적생일도 알아야 한다."는 그럴 듯한 구원파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겠다.

### b. 교단명만 알면 구원파 교회를 알 수 있다!!

이 세 단체는 그들만의 교단 명을 사용한다. 기성교회와 교단명이 달라 구별하기 쉽지만, 반대로 헷갈릴 수 있으니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박옥수, 이요한 측은 "대한예수교침례회"라는 교단명을 사용한다. 기성 교단의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기

독교한국침례회’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유병언 측은 ‘기독교복음침례회’라는 교단명을 사용한다. 전국에 수많은 구원과 교회를 다 알기는 어려우나 이 두 가지 교단명만 안다면 의외로 간단한 문제이다.

### c. 변치 않는 행사명을 기억하라!

세 구원파는 정기적, 비정기적인 행사나 집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그 행사명이 변하지 않고 있어 분별하기가 더욱 쉽다. 단, 그 행사명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 세 구원파가 어떤 행사를 열고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박옥수 구원파는 여름과 겨울을 이용한 여름수양회와 겨울수양회, 세계화에 발맞춘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글로벌캠프, 세계문화체험박람회, 세계대회가 있다. 또 매년 두 차례 올림픽경기장에서 성경세미나를 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성경세미나가 있다. 영어를 이용한 행사도 여는데 무료영어회화교실, 어린이영어캠프, 영어말하기 대회가 그것이다. 기브온 인형극단, 리오몬파냐(통기타음악공연),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 등 문화적인 행사도 하고, 대안학교 링컨스쿨을 주의해야 한다. 행사 종류가 많아 기억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부분 주최하는 곳이 ‘TYF’나 ‘국제청소년연합’이니 유심히 살피면 구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요한 구원파는 박옥수 구원파와는 달리 복잡한 행사가 많지 않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성경강연회’만 주의하면 된다. 유병언 구원파는 매년 여름수양회가 열리고 전국적으로 새 신자 포교를 위해 전도 집회를 하니 기억하자.

### d. 언론, 기관, 사업체로 구별하라!!

구원파에서 그들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책, 신문, 잡지를 비롯해 인터넷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며 긍정적으로 보도한다. 박옥수 구원파는 보통 ‘기쁜소식사’에서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주간 기쁜소식」, 「월간 기쁜소식」, 계간지 「Tomorrow」 등 정기적으로 잡지를 발간한다. 인터넷방송 ‘GNN방송’ [www.ignntv.com](http://www.ignntv.com)도 운영한다. 유병언 구원파는 기관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녹색회, (주)온나라유통, (주)세모를 비롯해 다정한 친구들, 청해진, 아해, 한국제약, 노른자, 한평신협 등에 관계된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파 신도다.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고 믿는 구원



파. 이들을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구원관을 갖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구원관만 있어도 구원파를 잘 대처할 수 있다. 더불어 구원파의 교단명, 행사명, 산하단체들의 이름과 활동까지 기억한다면 구원파의 어떤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올바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 e. 공교육 포교활동에 대한 대처

공교육기관 내 외부행사는 학교장 판단 하에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청에 따로 보고 절차가 없어 해당 교육청은 소속 학교 내에 어떠한 행사가 진행 됐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이러한 현실에 YF 공교육기관 내 포교활동에 대한 기성 교단의 대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전남 Y여자고등학교 YF 행사 관련해서 예정통합 여수노회가 지난 12월 11일 Y여고를 항의 방문했다. 이정수 노회장 등 20여 명은 학교 당국의 재발방지 요청을 위한 서한문을 통해 사회와 한국 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집단들이 공립학교에서 문화공연, 해외봉사활동을 빙자해 학생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일삼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전남 H고등학교 YF 행사 관련해서 전남 동부지역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은 학교장과 통화해 사과와 재발방지 확약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작년 12월 29일에는 순천시기독교총연합회 긴급임원회의가 열렸고 항의서한과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공교육현장에 침투, 학생들을 포교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려는 YF는 한국 교계의 발 빠른 대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YF는 주로 학생 신분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젊은 층에 맞는 세련된 감각으로 흥미와 재미를 제공하여 관심을 유발, 교묘히 자신들의 단체로 이끌고 있다. 이제는 공교육 현장에까지 침투하여 자신들의 단체를 홍보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으려 하고 있다. 교육의 현장을 어지럽히고 학생들을 미혹하는 이들의 포교전략에 청소년들의 세심한 주의와 한국 교계의 "긴장된 경계"와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 탁지원 소장과 현대종교 기자들

#### 4.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은 과거 문제성 단체였던 장막성전에서 떨어져 나온 이단 단체이다. 90년대 초부터 산하교육기관인 "무료성경신학원"을 앞세워 "성경의 모든 것을 3~6개월 만에 무료로 가르쳐 준다"며 왜곡(歪曲)된 성경해석으로 많은 기성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거리나 인근 지하철입구에서 상시로 홍보물을 나눠주거나 부착하며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생활이나 가정, 사회생활에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채 성경 지식에 갈급해하는 교인들에게 접근, 기성교회를 비판하며 비유와 비사로 성경을 풀어 "선민적 우월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기성교회를 이탈하게 하며 잘못된 성경관을 갖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과천의 본부교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0-10 고려빌딩 5층)를 두고 지역별 12지파를 형성, 드러난 교인 수만도 약 6~7만여 명이상으로 추산된다.

##### a. 신천지 창교자 이만희 씨

자칭 '보혜사 성령' 이라 주장하는 이만희 씨는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다(신천지 교회 발간, 『영해』). 서울로 상경해 전도관 박태선 씨의 신앙촌에 머물다 당시 18세의 학생으로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났던 장막성전의 어린 종유재열 씨의 집회에 참석한 후 유 씨를 추종하게 됐다. 1967년 2월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며 이탈, 1971년 유재열을 고소해 법정에 세우기도 했던 그는 1980년 3월 14일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 경기도 안양에 신천지 중앙교회를 설립했고, 지금은 경기도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다.

##### b. 조직과 활동



『신천지발전사』에 따르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4장과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며 영계보좌를 지상에 옮겨 놓은 형태로,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24장로를 중심으로 지역교회와 신학원이 7교육장, 12지파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님 보좌를 둘러쌌다는 24장로는 24개부서와 6개 분과로 나뉘어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7교육장이 교육, 기획 감사를 맡고 있다. 『신천지발전사』에 따르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4장과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며 영계보좌를 지상에 옮겨 놓은 형태라고 주장한다.

### c. 신천지 주장

신천지의 성경교육은 초급(25과), 중급(40과), 고급(22과)의 각 2개월 씩 총 6개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 66권을 모두 통달하여 깨우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교육과정은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천지의 성경공부 방식은 정통 교회의 “성경해석”과는 전혀 다른 소위 “비유풀이”로 진행되는데 자의적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치게 되면 비로소 신천지교회 교인이 되어 2개월 동안 새 신자 교육을 받게 된다.

### d. 미혹 방법

신천지의 포교전략은 경찰 수사에 비길 정도로 세밀하고 계획적이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기성교회 교인에게 접근한다. 포교방법을 교육하는 책도 200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포교하고 있다.

신천지는 수단과 방법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미혹한다. 신천지의 포교방법에는 기성교회 교인 포교/ 기도원, 교회, 집회전도방법/ 병원전도방법/ 신학교 전도 방법/ 대학생 전도방법/ 열차, 버스, 전철, 비행기 내 전도방법/ 노방전도/ 좌판 전도방법/ 일가, 친척, 친구 전도방법/ 직장 전도방법/ 다락방 전도방법이 있다. 이처럼 신천지는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상세한 포교지침서를 마련해 구성원을 교육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경세미나 등의 위장집회를 통한 전도방법, 기성교회에 "추수꾼"(정통 교회에 위장 잠입한 신천지 성도를 뜻함)으로 잠입하는 전도방법, 기성교회 전체를 포섭하는 "산 옮기기"(정통교단에 속한 교회를 신천지로 옮김을 뜻함)전도방법, "가나안 정복 7단계" 전도방법, 그리고 정통교회로 가장하여 접근하는 "위장교회"의 방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서 포교하기도 한다

#### e. 신천지로 인한 피해

##### 1) 가정파괴

신천지에 의한 피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신천지에 빠진 가족이 가출해버리는 경우 등이다.

##### 2) 교회분열

최근 각 개 교회마다 신천지의 위장침투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신천지 측에서 일정기간 이상 교육을 받은 뒤 기성교회에 새신자로 위장해 등록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 등을 한다.

##### 3) 학원침투

신천지 측이 대학에 침투하는 방법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정상적 동아리 등으로 가장하는 방법 등이다.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대학가의 청년들을 미혹하는데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다.

#### f. 대처 방법

1) 개교회 대처 :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이단에 대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날마다 저들의 진화하는 전략에 대한 동영상 시청이나 교육(간단하게 광고라도) 등이 필요하다. 광주뽀엘교회같은 경우는 전교인이 신천지 반대시위에 참석하기도 했음.



- 2) 시민들의 자발적 대처 사례 :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가 구성됨.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함
- 3) 언론의 대처 : 현대종교, MBC PD수첩, 기독교방송 등 언론들이 꾸준히 신천지 실상에 대해 보도가 필요.
- 4) 전문기관의 대처 : 이단에 빠진 분들을 회복, 치유시키는 상담 프로그램, 후속 교육, 예방세미나 등을 통해 대처해야함.

### 가. 교회 안으로 침투한다!

신천지교회의 훈련받은 신도들이 정체를 감추고 교회내로 침투해 활동하면서, 한국교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신천지교회 신도들의 비상식적인 포교활동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초대교회 이단들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성서와 기독교역사는 이단이 교회 밖에서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항상 교회 안에 그 뿌리를 두고 발흥하고 소멸해 왔다. 신약성서를 보면 초대교회에서 활동하던 이단들의 모습이 보인다. 갈라디아서 2장4절에 보면 교회로 가만히 들어와 예수 안에서 자유한 이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이단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초대교회 안에는 전선 없는 영적전쟁의 연속이었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신앙과 신학이 형성되었다. 동서방 교회의 공통된 신앙고백인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조가 등장한 것도 이때였다. 그런데 이천년이 지난 한국 땅에 이와 유사한 포교전략을 가진 이단이 나타났다. 다른 이단들처럼 교회 밖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천지교회의 등장이 그것이다.

### 나. 가정을 위해 가정을 포기한다?

신천지교회의 설립자 이만희씨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한다. 그의 저서들에는 지은이가 "보혜사" 이만희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다. 성서에 따르면 보혜사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다. 이씨의 주장을 따르는 신천지신도들은 자신들의 숫자가 144000명이 되는 날 자신들이 왕과 제사장이 된다고 믿고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정파탄을 무릅쓰고라도 포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신천지신도들이 많다. 언젠가는 다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은 가정을 위해 가정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신천지는 다양한 포교전략을 구사한다. 전남대학교에서는 동아리연합회를 장악하여 많은 건전한 기독교 동아리들을 제명시킨 사건도 있었다. 혹은 교회에 침투하여 청년회장이 되기도 하고, 청년부 성경공부 순장이 되어 청년들을 미혹하고, 구역장이 되어 구역식구들을 통째로 신천지로 데리고 가기도 한다. 과외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기도 한다. 일단 신천지에 미혹되면 6개월여의 교리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기간을 시작으로 가정불화와 가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얼마 전 공개된 신천지동영상은 소위 "산 옮기기" 작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50여명 이하의 교회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인 종교단체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세는 6~7만을 결코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천지 신도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144000의 그날은 요원하기만 하다.

#### 다. 걸어 다니는 성경, 성경만 가르친다?

신천지교회는 기성교회 교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걸어 다니는 성경"이며 "성경 외에는 교육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실제로 신천지 신도들의 교리교육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요즘은 세상에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가짜 이단들은 진짜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진짜 신앙인들은 가짜처럼 성경을 읽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명품을 아는 사람만이 위조품을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는 이단을 분별할 수는 없다. 신앙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만 이단에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신천지교회는 성경만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초, 중급 과정의 교리교육을 마치면,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진상』 등 이만희 씨의



저서들을 가르친다.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이 책의 해설과 증거는 모세 때(신29:4)에도 예수님 초림 때에도(마13:34-35) 밝히지 아니한 천국 비밀을 오늘날 드러내어 밝힌 것으로서 기독교 최고의 값진 내용의 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교리가 비성경적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천지교회 문제는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신천지교회로 인한 가정파탄과 설립자 이만희씨에 대한 신격화 문제가 언론에 상세히 보도됐고, 신천지가 성역화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에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가 최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주목할 만한 일은 최근 신천지교회를 비판한 사람들을 신천지 측이 고소를 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신천지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라며 피고소인들을 불기소했다. 한국교회의 공익을 위해 신천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 라. 신천지보다 우리가 순결해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신천지로 인해 교회 안에 상호불신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천지교회 추수꾼들(기성교회 안에서 정체를 감추고 포교활동을 벌이는 신천지 신도들)로 인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목회자들은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와도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신천지의 "비정상적인 포교활동"도 문제이지만, 이로 인한 "신앙공동체의 내적분열"이 심각하다. 소위 "신천지교적부"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그것이다. 교적부에 이름이 거명된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신천지에 있을 때에는 신천지에게 피해를 당하고, 신천지를 이탈한 후에는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설상가상으로 신천지는 교회갈등을 더욱 부추기기 위해 신천지에 단순하게 참가했거나 이탈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만든 거짓 교적부를 역으로 살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는 신천지다. 이들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포교방법이 교회로 하여금 강한 방어벽을 세우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신천지문제에 대해 교회와 사회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교회의 내부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치유와 회복의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한다. 이단과의 영적싸움에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단과의 싸움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우리 안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단 사이버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단에 대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남는 것이다. 신천지에 대한 성급한 대응으로 인해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탁지원 소장과 탁지일 교수



[illegible]

##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

---

## This image shows a single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우리 연애할까요?

| 조세영 목사    금성교회 담임    Young2080중앙위원    전 용두동교회 청년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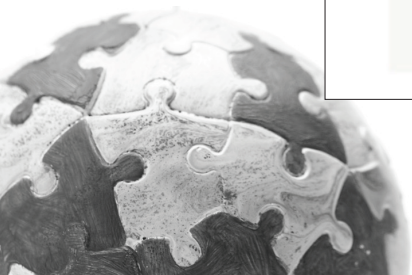
2011 1124 감리교 청년리더십학교

“우리 연애 할까요?”

- How? 데이트, 결혼

- 장 1:26~28 -

강의 : 조세영 목사 (금성교회)





## 만남을 **HOW** 시작할 것인가?

1.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이상형 알기.

2. 구하라~!(Ask) 요청하라

■ 하나님께 (기도로) ■ 이웃에게 (말로)

나보다 잘난 사람? 적합한 사람 달라고~ ^^

Why? (동기, 목적) → 올바른 기준 필요

3. 찾으라~!(Seek)

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먼저 찾으라.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다.(탐험여행)

4. 두드리라~! (Knock)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데이트)



## **HOW**하나님이 주신 짝인지 아는가?

◆ 강렬한 느낌(Feel)? 호감? Be careful!

◆ 환상, 예언기도? 기도뿐만?

◆ 집을 구하는 것과 같다.(기준에 의해서)

- 이성과 판단력을 최대한 활용하라

◆ 겉모양(외모, 환경, 조건..)만 보지 마라

- 가치관, 태도, 습관, 성품(진짜 중요)

◆ 데이트를 개방하라!

- 제3자(친구, 목회자, 선후배)를 통한 점검



### 데이트는 HOW ?

- 1.너무 조급히 정혼으로 가지 말 것!
- 2.가능하면 기한을 정해 놓으라  
- 모호한 관계를 너무 오래 지속 시키지 마라
- 3.세속적 교제방법, 유행을 수용하지 말 것
- 4.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지르지 말라
- 5.최종결론은 부모의 승낙을 얻은 때부터..



### 배우자 찾는 지혜 HOW ?

- 1.진지한 기도!
- 2.서로의 신앙 점검(불신자? 만들어 결혼하라)
- 3.상대의 인격,기질이 나와 적합한지 파악
- 4.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로
- 5.비전,가치관이 나와 유사한지...
- 6.언어습관,생활습관 점검
- 7.참사랑인가? 본인인지,선택 중요..

## 스킨십(Skinship) HOW ?

- ◆ 접촉의 한계 (난도와 같다)
- ◆ 데이트 기간은 마음, 생각을 알아보는 기간
- ◆ 콜라병, 탕의 비유를 생각하라
- ◆ 어디까지 수용할까?  
(분명한 입장, 합의 필요)
- ◆ 순결함이 최고의 선물이다~!

## 프로포즈는 HOW ?

- ◆ 확인이 필요할 때 (데이트 → 결혼)
  -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환경)의 충고~
  - \*자신의 확신~ 단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가?
- ◆ 어떻게? \* 직접적으로(Event) \* 제3자를 통해
  1. 데이트는 50%의 이별을 전제로 한다.
    - \* 지나친 소유욕은 금물~
  2. 데이트는 복수의 만남을 전제로 한다.
    - \* ‘양다리’가 아니라 ‘다양한 만남’이 필요



## 서로 어긋날 때 **How?**

### 1. 의도적인 무시, 경멸?

- 상대방에 대한 배려 필요

### 2. 제3자를 통하면 상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다툼, 자이는 나쁜 것이 아니다.



## 남+여=한 몸 / 하나님의 법

###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 (Not same but equal)

### ◆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

갈등, 불행의 시작-차이를 이해 못함

#### 1.데이트,결혼의 근본 의미를 알아야 한다.

- 최초의 조직; 가정! 종족 번성,작은 전국 경험

#### 2.성경적인 남,여 관계는 돕는 배필이다.

# 메모의 힘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간다.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upon your hearts,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and bind them on your foreheads,

Write them on the door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Deoutronomy 4:6-9

## 제9회 감리교 청년 리더십학교

---

퍼낸날 : 2011년 11월 21일

퍼낸이 : 신경하

엮은이 : 이화식

편 집 : 정현범 02) 399-4371

홈페이지 : <http://www.kmcedu.or.kr>

이메일 : [kmcedu@chol.com](mailto:kmcedu@chol.com)